

특집논문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치가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상호(서원대학교) · 조광덕(경희대학교)

본 연구의 발견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잉글하트와 달튼 등 후기산업사회 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탈물질주의의 증가를 겪은 세대가 이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자들이 투표참여를,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자들은 '쉬운 참여'라 할 수 있는 대선과 총선 등 투표에 탈물질주의자들보다 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탈물질주의자들은 '어려운 참여'라 할 수 있는 시민행동에 물질주의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시민행동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평화적 시위나 촛불 집회에 참여'에 미치는 가치의 효과는 뚜렷하였다. 셋째, 가치가 물질주의일수록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의 효과는 정치참여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가치가 정당과 노동운동 등 정치단체의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주제어: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참여, 시민행동, 대학생

I. 문제 제기

금년은 한국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6월 항쟁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산업화의 초기인 1960년에 발생하였던 4.19 혁명과 시민사회의 일대 전환을 낳았던 1987년 6월 항쟁의 공통점은 대학생의 적극 참여로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920)

체제변화를 낳았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두 사건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떠나 대학생 집단은 항상 이 나라의 중대한 정치사회 변화를 이끈 동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서구의 68혁명도, 2010년 아랍의 봄을 선도 하였던 세력도 대학생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진학률(2015년 현재 70.9%)로 대학생 집단과 청년 세대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집단의 지위는 시대 변화의 선봉이 아니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혹은 주변부만 기웃거리는 ‘잉여세대’로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렇듯 대학생 집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자의식은 크게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대학생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 연구나 비교연구를 포함한 실증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조사가 범람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거를 전후로 한 단편적인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집단’의 가치와 참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대학생의 가치에 관한 조사는 제법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학생의 가치와 민주화의 관계를 지난 20년 동안 추적해 온 어수영(1999; 2004; 2011)의 연구이다. 또한 학원복음화협의회(2006; 2009; 2012)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대학생의 가치와 생활에 대한 시계열적 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지만 두 조사 모두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그것과 정치참여나 사회참여라는 행태적 측면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전자는 대학생 집단보다는 전 세대를 아우른 것이었고, 후자는 개신교

와 비개신교라는 대학생 집단 내부의 종교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배한동(2001)의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 집단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통일·대북의식과 민주시민의식 등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둘째, 가치와 참여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표본 집단의 전국성과 문제의식의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김옥·김영태(2006)의 연구는 본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과 귀중한 비교의 준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전과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민병기·김도균·한상현(2013)의 연구는 온-오프에서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쉽게도 응답자 집단이 대전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대학생의 가치관과 정치참여를 다룬 연구들도 쌓이고 있다(박희봉 2010; 전용주·김도경·서영조 2008; 이상환 1999). 그렇지만 대개의 연구는 문제의식이 ‘영호남 대학생들의 지역주의 성향의 비교’라는 한정된 차원에 달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치가 미치는 행태의 측면을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로 세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정치사회적 삶에 대한 총체적 조감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개는 대학생 집단의 가치를 독립 변수로 하고 정치참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사회참여만을 설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가장 압도적인 것이 정치참여 중에서도 주로 투표참여에 편향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야 촛불시위 참여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성경룡 2015; 이갑운 2011; 조기숙 2009). 물론 투표참여가 가장 중요한 행태의 정치참여임은 분명하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1천 5백만이 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듯이 시민행동 또

는 직접행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형태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에 존재하는 연계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함께 다룬 연구는 김욱(2013)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대학생 집단이 아니라 19대 총선 직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김욱의 발견(findings)이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 어떤 지를 보여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가치를 판별한 후 그것이 정치참여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게 해명되었던 부분, 즉 탈물질주의(post-material) 가치가 정치사회적 참여 유형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의 전망을 그려보는 대단히 흥미로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와 참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할 것이다. 둘째,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고 기존 선행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셋째, 본격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및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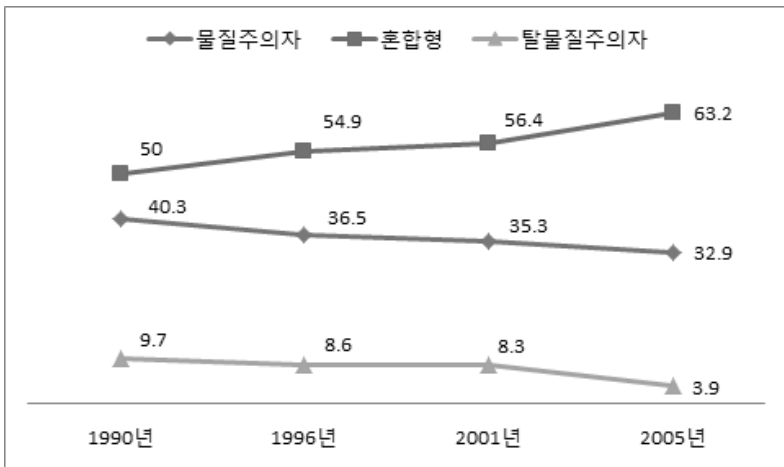
1. 가치와 정치참여

잉글하트는 ‘2차 대전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팽창 결

과,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젊은 출생 코호트들의 형성기 경험은 나이 든 코호트들이 겪은 경험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며 그 결과 각 코호트들은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잉글하트 1983, 4)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장한 전쟁 이전 세대는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강조하는 생존 가치 혹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함에 비하여,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당연시하는 전후 세대는 자기표현, 삶의 질 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림 1>과 <그림 2>는 탈물질주의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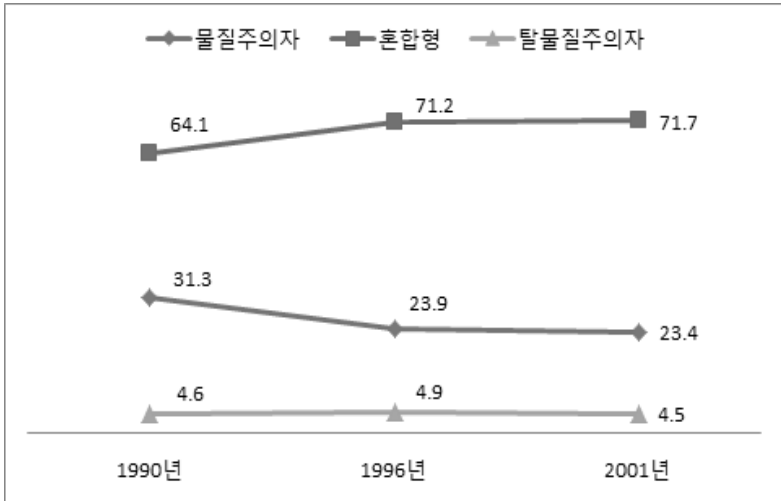
<그림 1> 어수영의 한국인의 탈물질주의 분포의 추이



<그림 1>과 <그림 2>는 다소 혼란스럽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물질주의자의 비율은 최소 23.4%(2001)에서 최대 40.3%(1990)를 오

르내렸다. 탈물질주의자의 비율 역시 최소 3.9%에서 최대 9.7%를 기록하는 등 시기와 연구자마다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림 2〉 박재홍·감수택의 한국인의 가치 분포의 추이



세계가치조사(WV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 추세 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대표적 학자는 어수영이다. 그는 세 시점의 시계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2004)에서 ①탈물질주의자에 비해 물질주의자가 훨씬 많다. ②지난 10년간 물질주의자 비율이 감소 했고 그 만큼 혼합형이 늘어났으며 탈물질주의자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 ③연령별로 보면 탈물질주의자 비율이 젊은 층에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난다. ④탈물질주의자는 시민적 관용성이 높고 저항적 정치 행위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사회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의 관찰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탈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 현상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 즉, 인격 형성기에 겪은

환경의 차이-세대 간의 차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어수영 1999, 119).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이용했지만 탈물질주의 지수를 어수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한 김욱(2007, 85-86)이나 마인섭·장훈·김재한(1997)의 연구 결과 모두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박재홍·강수택의 결과이다. 그들은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탈물질주의를 세대로 추적하였는데, 어수영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199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의 거친 파고가 국내에 세차게 밀려오는 과정에서 특히 젊은 세대(1970-84년 코호트)가 심한 고용 불안정 상황에 놓이게 된 데서 일차적 원인”을 찾고 있다(박재홍·강수택 2012, 87). 어떻게 보면 이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잉글하트는 이미 세대효과를 억제하는 시기효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1970년대 중반 불황기에 그리고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의 불황기에 각 집단이 물질주의의 극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그 원인으로 당시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잉글하트·월젤 2011, 189-190). 어쨌든 이 부분, 즉 IMF와 같은 사회경제 상황의 악화가 대학생 집단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아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수행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이다. 10년 전에 이루어진 어수영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5.5%나 줄어든 반면 혼합형과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은 각각 4.1%와 1.8%가 증가했다. 탈물질주의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주의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1990-2005년 동안 “탈물질주의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자 비율 역시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오히려 크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박재홍·강수택 2012, 82). 우리나라의 경우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이미 한 세대 전에 후기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서구 선진국보다는 10-15% 정도 낮지만, 그럼에도 물질주의자의 비율의 감소는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라는 가치의 차이는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잉글하트와 웰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에 따르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강조점은 투표보다 일시적이고, 쟁점 이슈와 연관된, 그리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형태의 시민행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달리 말해,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참여 방식은 엘리트가 이끄는 선거 캠페인과 정당정치에서 대중의 자기표현이라는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잉글하트·웰젤 2011, 90-93).

달톤은 가치보다는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적으로는 잉글하트가 말한 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시민적 의무는 감소하였고, 반대로 참여적 시민성은 뚜렷하게 증가해 왔다. 의무(duty-based)에 기초한 시민성 규범은 선거에서의 투표와 선출된 정부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을 자극하지만, 참여적 시민성은 자원주의(voluntarism)에서 공적 저항에 이르는 다른 형태의 정치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조적인 규범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관용, 공공정책 중시 등을 재구성한다(<표 1> 참조). 그는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퍼트남의 주장(Putnam 1993, 2002)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로 우려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젊고 보다 많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야심찬 도전의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던 정부의 신뢰와 엘리트의 권위인 것이다(Dalton 2008, 22-31).

〈표 1〉 시민성의 구분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시민성의 엘리트-전통적 모델. - 알몬드와 버바의 신민-참여적 정치문화 - 시민 역할의 한정 - 기존 정치질서와 권위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의적 또는 공동체주의적인 모델 - 바버(Benjamin Barber)의 강한 민주주의와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위대한 세대(The Great generation)의 규범. - 충성스러운 객체(loyal sub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규범 - 해방의 주체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이 공중(public)에 대한 회의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

물질주의자들이 투표참여와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를,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과 같은 새로운 정치참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철희(1997)는 세계가치조사(1996년)의 한국자료 분석을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파업 등의 저항적 정치행위나 각종 자원 결사체에의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치지향이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홍·강수택(2012)은 1990-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4차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저항적 정치행위 참여는 탈물질주의자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한국의 민주화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시

사한다.

김옥(2013)의 연구는 우리의 문제의식이나 연구방법과 가장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비선거참여에 영향력을 주로 행사하고, 투표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비선거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는 그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가치와 사회참여

누가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가의 주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과학 분야의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서구에서는 사회참여의 주역으로서 일정한 교육과 재산을 겸한 중산층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민참여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버바 등은 민주적 참여의 핵심은 소리와 평등(voice and equality)인데, 미국정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우렁차고 간혹 분명하게 울려 퍼지지만 거의 동등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버바는 참여의 불평등과 왜곡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인으로 교육을, 제도적 요인으로 미국정치에서 일반화된 기부 관행을 지적하였다(Verba 2002, 509). 스카치폴과 피오리나 또한 오늘날 미국 시민사회의 결사체 활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최고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이 더 많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세기 고등교육을 받는 전문직 중상류층의 부상이 NGO 혁명을 이끈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1,800만에 달하는 이들은 비영리 기구에 고용된 전문가들이며, 이러한 단체들을 후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고등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임을 강조하였다(Skocpol and Fiorina 1999, 495-496). 국내의 연구 또한 학력과 교육이 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장수찬의 연구에서는 결사체의 참여 경향은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위 계급일수록 높게 나타났다(장수찬 2002, 106-110). 또 다른 연구 역시 자원봉사의 참여 빈도가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서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이용관 2015, 295). 최근 사회·정치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은 위에서 기술한 교육과 계층과 더불어 세대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의 1996년 한국 자료 분석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시위·파업 등의 저항적 정치행위는 물론이고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등 각종 자원 결사체에의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정철희, 1997). 강수택·박재홍(2011)의 연구 역시 탈물질주의의 가치 지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시민단체(NGO)를 포함한 사회운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사회운동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환경운동과 적극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다. 김두식(2005)은 1990-2001년 기간 중 3개 시점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양자 간의 유의미한 정(positive)의 관계가 2001년 조사 자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그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IMF 이후에 탈물질주의의 가치와 환경운동 사이에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박재묵·이정림(2010, 73-78)은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국 표본에 비해 이들 자원봉사자 집단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탈물질주의 가치를 갖는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강한 환경주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가치를 사회참여로 이끄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송경재(2011)는 그 비밀의 열쇠를 젊은 세대의 이슈 지향성과 네트워크(SNS) 능력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연결망을 통한 수평적 사회 자본을 형성하며 기존의 권위에 대항하는 수평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이전 세대와 다른 정치 인식과 참여 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 인식에 있어 정당, 선거, 민주주의 등과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정체성, 환경, 소비자, 젠더, 정의와 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인지 영역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관료주의의 부담이 큰 수직적 조직화보다는 유희적이고 창조적인 참여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물질주의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옥(2013)은 투표참여와 비선거참여에 미치는 상이한 요인을 발견하였다. 즉, 연령은 투표참여에는 정적(+인 영향을, 비선거참여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시민적 의무감이 강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강할수록, 동원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탈물질주의와 투표참여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함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비선거참여에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동원경험이 많을수록 비선거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선거참여를 어려운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한 김옥과 김영태(2006)의 연구에서도 탈물질주의의 영향은 동일하였다.¹⁾ 또한 2008년도 실시한 촛불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숙과 박혜윤(2008)의 연구에서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개인주

1) 김옥·김영태(2006)는 참여로부터 기대하는 편익(benefit)이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cost)보다 크면 참여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하여 정치참여를 투표 등의 쉬운 참여와 시위와 집회, 자원봉사 등의 어려운 참여로 구분하였다.

의적 성향과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였으며 향의, 집회, 농성과 같은 정치참여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김욱(2013)의 연구에서는 비선거참여를 요인분석을 통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상관행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즉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모든 비선거참여에 동등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어려운 참여인 비선거참여를 좀 더 세분화하여 순서형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김욱과 김영태(2006)의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대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다.

III. 자료, 주요 변수 및 분석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모형은 현대 한국사회의 대학생이 지닌 가치와 참여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가치가 정치참여의 특정 유형, 즉 투표와 직접 시민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판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할 것이며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가치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한 다중선형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가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오도 승산비(odds ratio)의 효율적인 해석을 위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값을 제시할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지표 중에서는 Cragg &

Uhler(Nagelkerke)를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Madala(1983)에 의하여 제안된 ML(Cox-Snell) R^2 인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의 한계점 보완하기 위하여 정규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탈물질주의가 사회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ordinal logistic)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3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하게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치의 변화가 정치참여, 특히 투표와 시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가치의 변화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생의 가치가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CAWI)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으로 전문대학, 대학원생은 제외시켰다. 표본의 크기는 대학생 700명이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4 시도별·계열별 대학생 수> 현황에 따라 지역·계열·성별로 층화표본 추출 후 그 비율에 맞게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집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7\%$ 포인트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3. 변수 및 측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가 참여(정치참여와 시민참여)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설문문항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인별 설문 문항

변인		설문문항	
가치	항목 I	1) 고도 경제성장 2) 국방강화 3)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 4)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	
	항목 II	1) 사회질서 유지 2)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3) 물가 상승 억제 4) 언론 자유 확대	
	항목 III	1) 경제성장 2)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3)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4) 범죄소탕	
정치참여	투표 참여	2012년 총선	1) 투표했음 2) 투표하지 않았음 3) 투표권 없었음
		2012년 대선	1) 투표했음 2) 투표하지 않았음 3) 투표권 없었음
	시민행동	탄원서·진정서·청원서에 서명	
		보이콧(불매 운동)에 참여	
		평화적 시위나 촛불 집회에 참여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			
		과업·점거농성에 참여	
사회참여	시민단체 참여	환경보호 단체	
		시민운동(인권·권력 감시·여성 등) 단체	
		자선 및 인도주의 단체	
		소비자 단체	
		자원봉사 단체	
	정치단체 참여	노동단체	
		정당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계층의식	1)상층~6)하층	
	가구 소득	1)100만원 미만~7)600만원 이상	
	전공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6) 의학계열 7) 예체능계열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출신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남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성별	1) 남자 2) 여자	

1) 가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탈)물질주의에 관한 변인은 세계가치조사 자료에서 사용된 문항을 재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의 몇 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화 한 값, 즉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80)의 통합지수(composite index) 방식을 활용하였다(<표 3> 참조).

<표 3>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의 측정 문항

문항 세트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I	A. 높은 경제성장 B. 강한 군사력	C.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보다 강한 발언권 D. 도시와 농촌의 환경 미화
II	E. 국가의 질서 유지 G. 물가 상승 억제	F. 주요 정부결정에 보다 강한 발언권 H. 표현의 자유 보호
III	I. 경제성장 L. 범죄와의 전쟁	J.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의 진보 K. 돈보다 생각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진보

본 연구는 어수영(2004)의 분석 문항과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문항 I, II, III세트 각각)에 가장 중요한 것(1순위)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2순위)으로 답변을 구성하였다(탈물질주의의 6개 선택: 6점, 0개 선택: 0점). 이 논문에서는 교차분석의 편의상 지수 값을 세 범주로 재부호화(recoding)했다. 즉 지수값 0-1인 응답자를 물질주의자, 2-4인 응답자를 혼합형, 5-6인 응답자를 탈물질주의자로 분류했다. 한편, 김욱·김영태(2006)의 연구는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지만, 한국 사회가 탈물질주의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물질주의를 0-1이 아니라 0-2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2) 정치참여

투표참여는 ‘2012 국회의원 선거’와 ‘2012 대통령 선거’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측치와 연령에 따른 제한으로 투표당시 포함되지 못한 응답자는 제외시켰다. 투표참여는 투표하지 않았음(0)과 투표함(1)로 재부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시민행동은 ①탄원서·진정서·청원서에 서명, ②보이콧(불매 운동)에 참여, ③평화적 시위나 촛불 집회에 참여, ④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 운동 참여, ⑤파업·점거농성에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행동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에서 ‘참여한 적이 있다’로 3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화시켰다. 시민행동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799로 일치도가 높게 나왔다.

3)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사회참여는 시민단체 참여와 정치단체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민단체는 환경보호 단체, 시민운동(인권·권력 감시·여성 등) 단체, 자선 및 인도주의 단체, 소비자보호 단체, 자원봉사 단체로 구분하였다. 참여 정도는 ‘회원 아님’에서 ‘적극적 회원’으로 3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합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변인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값이 .746으로 일치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단체 참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단체(조합), 정당 참여를 합산하여 평균화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810으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4) 통제 변인

대학생의 정치적 성향(진보-중도-보수)은 정치사회적 참여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진보 성

향에서 보수 성향까지 총 10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 변인으로 해석하였다. 대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정치적 성향만큼이나 중요한 변인이다. 해당 변인은 ‘매우 흥미가 있다’에서 ‘전혀 흥미가 없다’인 총 4점 리커트(Likert)척도의 연속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으로 수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끝으로, 소득과 별도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상층에서 하층까지 6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상층임을 의미하도록 재부호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즉 성별(남/여), 연령과 더불어 학력변수(1학년에서 4학년)를 사용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가구수입)은 100만원 미만에서 600만 원 이상으로 연속 변인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전공에 따른 차이도 대학생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인문·사회·교육을 한 범주로 재부호화 하였으며 공학·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총 4개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에서 기준은 인문·사회·교육계열로 분석모형에 투입시켰다. 응답자의 대학의 지역에 따른 정치적 선택과 성향도 활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소재지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서울·경기·인천, 강원, 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 충북·충남·대전·세종, 제주로 재부호화하여 총 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4〉 기술 통계치

변인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빈도(%)	최솟값	최댓값	Chronbach - α	
가치: (탈)물질주의		700	2.584	1.025	-	0	6	-	
정치 참여	시민행동	700	1.768	.453	-	1	3	.799	
	총 선	투표안함(0)	700	-	-	93(16.91)	0	1	-
		투표함(1)		-	-	457(83.09)			-
	대 선	투표안함(0)	700	-	-	62(11.03)	0	1	-
		투표함(1)		-	-	500(88.97)			-
사회 참여	시민단체	700	1.09	.237	-	1	3	.746	
	정치단체	700	1.043	.217	-	1	3	.810	
통계 변인	정치 이념	700	5.354	1.654	-	1	10	-	
	정치적 관심 정도	700	2.528	.757	-	1	4	-	
	주관적 계층의식	700	3.174	.913	-	1	6	-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 별	남(0)	-	-	-	423(60.43)	0	1	-
		여(1)	-	-	-	277(39.57)			-
	전 공	인문·사회·교육	-	-	-	326(46.57)	1	4	-
		공학·자연	-	-	-	269(38.43)			-
		의학	-	-	-	46(6.57)			-
		예체능	-	-	-	59(8.43)			-
	가구 소득	-	4.094	1.712	-	1	7	-	
	학 년	1학년	-	-	-	99(14.14)	1	4	-
		2학년	-	-	-	251(35.86)			-
		3학년	-	-	-	128(18.29)			-
		4학년	-	-	-	222(31.71)			-
학 교 소 재 지	서울·경기·인천	-	-	-	257(36.71)	1	6	-	
	강원	-	-	-	39(5.57)			-	
	부산·대구·울산	-	-	-	205(29.29)			-	
	전북·전남·광주	-	-	-	87(12.43)			-	
	충북·충남·대전	-	-	-	106(15.14)			-	
	제주	-	-	-	6(0.86)			-	

4. 상관분석

대학생의 가치가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를 제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가치와 시민단체 참여($r=-.109$, $p<.01$), 소득($r=-.097$, $p<.01$), 정치적 성향($r=-.290$, $p<.001$)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시민행동($r=.136$, $p<.001$)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시민단체 참여와 정치단체 참여($r=.606$, $p<.001$), 시민행동($r=.191$, $p<.001$), 주관적 계층의식($r=.089$, $p<.05$)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시민행동과는 정치적 성향($r=-.211$, $p<.001$)이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r=.570$, $p<.001$)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상 결과를 볼 때, 높은 상관계수는 다중공선성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 분산팽창 계수 값을 제시할 것이다.

<표 5> 상관분석표

	a	b	c	d	e	f	g
a.(탈)물질주의	1.00	-	-	-	-	-	-
b.시민단체 참여	-.109 **	1.00	-	-	-	-	-
c.정치단체 참여	-.031	.606 ***	1.00	-	-	-	-
d.시민행동	.136 ***	.191 ***	.097 **	1.00	-	-	-
e.소득	-.097 **	.071	-.038	.033	1.00	-	-
f.주관적 계층의식	-.062	.089 *	.009	.013	.570 ***	1.00	-
g.정치적 성향	-.290 ***	.022	.055	-.211 ***	.026	.032	1.00

+ $p<0.10$, * $p<0.05$, ** $p<0.01$, *** $p<0.001$

IV. 분석결과

1.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치변화 비교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치는 <표 6>과 같다. 물질주의자는 79명(11.3%), 혼합형은 519명(74.1%), 탈물질주의자는 102명(14.6%)로 나타났다.

<표 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치 분포도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비율(%)	11.3	74.1	14.6
사례 수(N)	79	519	102

이번 조사대상의 결과는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체 표본과 뚜렷이 구분되는 상이한 가치 정향을 갖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조사(KSDC 2010)에서 물질주의자는 탈물질주의자보다 3배나 많았다.²⁾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물질주의자보다 탈물질주의자 많았다(+3.3%). 전체적인 패턴은 어수영의 연구 중 대학생 집단이 포함된 20대 전반 그룹과 유사하였다.

둘째, 대전과 호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욱·김영태(2006)의 연구보다는 혼합형이 적었고 물질과 탈물질주의자 모두 약간 높게 나타났다. 민병기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중간 값이 작고,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 이는 잉글하트나 어수영

²⁾ 우리나라에서 제6차 세계가치조사를 수행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결과는 물질주의자(17.9%), 혼합형(75.8%), 탈물질주의자(6.3%)로 나타났다.

과는 달리 요인 값이 높은 4개 항목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2013, 87).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고용과 분배가 악화되는 장기간의 불황 속에서도 물질주의자가 오히려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감소하였고, 오히려 탈물질주의자가 약간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은 소득과 성, 그리고 지역에 따른 가치의 단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자는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적으로 전문직과 학생, 연령에서는 20대,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광주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어수영 1992, 167). 먼저 소득과 가치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사례 수가 가장 많은 중간소득 집단(n=415)은 평균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예상과는 달리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집단에서 탈물질주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 모두 남학생이 약간 많았으며, 여학생은 혼합형이 많았다. 성과 가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병기외(2013, 8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탈물질주의자 비율(30.2%)이 남학생(16.2%)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17.123, $p < .001$, $df=2$). 하지만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어수영(1992, 166)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7> 가치와 사회인구학적 요인

구분(전체 평균)	소득(만원)			성		지역			
	200미만	200-500	500이상	남	여	수도권 (n=259)	중부권 (n=175)	영남권 (n=146)	호남권 (n=120)
탈물질주의(14.6%)	17.2%	14.5%	12.6%	15.1%	13.7%	15.4%	12.0%	13.7%	17.5%
혼합형(74.1%)	71.6%	74.2%	76.2%	72.3%	76.9%	73.0%	77.7%	69.2%	77.5%
물질주의(11.3%)	11.2%	11.3%	11.3%	12.5%	9.4%	11.6%	10.3%	17.1%	5.0%

그렇지만 가치의 지역 편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 탈물질주의자의 분포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호남권>수도권>영남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수영의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자가 서울과 광주에 더 편중되어 있었고 부산과 대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서울>광주>부산=대구). 특히 광주의 경우는 물질주의자가 단지 5%에 그치고 탈물질주의자가 17%로 거의 3배가 많았다. 어수영은 이를 5.18 광주항쟁 이후 촉발된 민주화운동과 연관하여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와 밀접한 지역별 대학생 비교 연구로는 김욱·김영태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는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지역별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에서 물질주의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목포지역에서는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김욱·김영태 2006, 93-96). 이렇게 두 지역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김진하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정치의식의 지역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민주주의 의식, 강력한 정부 선호도, 이념의 진보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충청지역이 가장 보수적이고, 부산·울산·경남지역과 강원지역, 광주·전라지역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하 2006, 228).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년과 전공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학년과 달리 전공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탈물질주의자는 사회계열(18.2%)이 가장 많았고, 물질주의자는 자연계열(17.6%)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성동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는 수도권 지역의 인문사회계열의 남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배성동 2001, 4).

〈표 8〉 가치와 전공의 관계

구분(전체 평균)	전공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탈물질주의(14.6%)	14.7	18.2	15.0	13.9	8.1	15.2	15.3
혼합형(74.1%)	73.4	69.9	72.5	76.4	74.3	76.1	77.9
물질주의(11.3%)	11.9	11.9	12.5	9.7	17.6	8.7	6.8

해외의 연구 중 우리와 유사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대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한 Ravitch & Joseph(2002)의 연구이다. 가장 분명한 패턴은 정치행동과 인식에 미치는 사회과학과 경영학의 반대 효과이다(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필자들은 최근 대학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영학의 증가가 정치참여와 투표율의 저하, 지역 봉사활동의 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과학과 공학은 반정치적이지는 않지만 경영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Ravitch & Joseph 2002, 45-46).

이번 조사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대학생 중 탈물질주의자는 전체의 14.6%에 달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체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에 미치는 매개변수로서 성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못했다. 반면, 지역과 전공에 따라 가치의 일정한 차이가 드러났다. 탈물질주의자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자연계열보다는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2. 가치와 정치참여의 연관성

1) 투표 참여: 쉬운 참여

본 연구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대학생의 (탈)물질주의와 정치참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의 (탈)물질주의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표 참여는 투표 안함(0)의 값을 갖고, 투표함(1)의 값을 갖는다. 기존에 선행연구에서는 투표 행위가 쉬운 참여의 한 유형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탈)물질주의를 역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즉, 값이 클수록 물질주의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del1은 종속변인이 총선에의 투표참여이다. 대학생의 가치가 탈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로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 할 승산(odds)은 약 1.303배 증가하며, 학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승산은 약 1.617배 증가한다. 또한, 정치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승산은 약 1.877배 증가한다. 이를 한계효과로 해석하면 다른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탈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의 방향으로 한 단위 증가할 때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확률은 3.4%만큼 증가하며($p < .05$), 학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할 확률은 약 6.2%만큼 증가한다($p < .001$). 또한 정치에 대한 흥미의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할 확률은 8.14%만큼 증가한다.

다음으로 model2는 종속변인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이다. 대학생의 가치가 탈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로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승산은 약 1.328배 증가하며, 학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승산은 약 1.427배 증가하며 정치에 대한 흥미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승산은 약 1.597배 증가한다. 같은 방식으로 한계효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대학생의 가치가 탈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로 한 단위 증가할 때,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확률은 약 2.8%증가한다($p < .05$). 또한 학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할 확률은 약 3.5%증가한다($p < .05$).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투표할 확률은 약 4.6%증가한다($p < .05$).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물질주의의 증가는 투표할 확률을 증가시키며 대선보다는 국회의원 투표에 미치는 효과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의 가치가 탈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확률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항로지스틱 결과

	model1			model2		
	오즈비	한계효과	표준오차	오즈비	한계효과	표준오차
탈물질주의 지수 (0=탈물질주의, 6=물질주의)	1.303*	0.034	0.123	1.328*	0.028	0.141
성별(기준: 남성)	-	-	-	-	-	-
여성	0.705	-0.047	0.272	0.859	-0.015	0.321
전공(기준: 인문/사회/교육)	-	-	-	-	-	-
자연/공학	0.884	-0.016	0.267	0.709	-0.033	0.308
의학계열	1.407	0.038	0.608	-	-	-
예체능	0.644	-0.062	0.442	0.585	-0.055	0.493
학년	1.617***	0.062	0.131	1.427*	0.035	0.151
가구소득(log)	0.952	-0.006	0.086	0.893	-0.011	0.099

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경기/인천)	-	-	-	-	-	-
강원	0.573	-0.081	0.504	0.818	-0.025	0.554
부산/대구/울산	0.909	-0.012	0.307	1.726	0.053	0.366
전북/전남/광주	1.175	0.019	0.429	1.876	0.059	0.529
충북/충남/대전/세종	0.960	-0.005	0.360	1.287	0.027	0.407
주관적 계층의식	0.984	-0.002	0.159	1.077	0.007	0.185
정치적 성향	0.915	-0.012	0.078	0.882	-0.012	0.089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	1.877***	0.081	0.165	1.597*	0.046	0.189
수도 결정계수	.086		.072			
로그 가능성	-227.699		-177.487			
표본 수	546		530			
결정계수	0.127		0.099			
카이제곱 통계값	43(14)		27.55(13)			

유의수준: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시민행동: 어려운 참여

<표 10>에서는 종속변인이 시민행동인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와는 다르게, 탈물질주의 지수를 역으로 재설정하였다. 즉 값이 클수록 탈물질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탈물질주의:0, 탈물질주의:6). 그 이유는 탈물질주의가 클수록 어려운 참여를 한다는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탈물질주의가 증대될수록 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p < .05$)). 다른 변인들을 해석하면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p < .01$),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p < .001$), 정치에 대한 흥미의 정도가 높을수록($p < .001$) 시민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에 비해 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 충북/충남/대전

/세종 지역 학생이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모형은 종속변수의 변이의 약 21.4%를 설명한다. VIF값은 평균 1.2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학생의 탈물질주의가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선형회귀 결과

	model1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탈물질주의 지수 (0=물질주의, 6=탈물질주의)	0.040*	0.016
성별(기준: 남성)	-	-
여성	0.097**	0.034
전공(기준: 인문/사회/교육)		
자연/공학	-0.018	0.034
의학계열	0.055	0.065
예체능	0.063	0.058
학년	0.001	0.015
가구소득(log)	0.006	0.011
학교 소재지(기준: 서울/경기/인천)	-	-
강원	0.088	0.070
부산/대구/울산	0.084**	0.038
전북/전남/광주	0.124*	0.051
충북/충남/대전/세종	0.094*	0.047
제주	0.147	0.168
주관적 계층의식	0.012	0.020
정치적 성향	-0.047***	0.010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	0.242***	0.021
상수	1.153(0.119)***	
표본 수	700	
결정계수	.231	
수정된 결정계수	.214	

주1) 유의수준: +p<0.10, *p<0.05, **p<0.01, ***p<0.001

<표 11>은 시민행동 참여의 하위변인들을 별도의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재분석하였다. model1은 종속변인이 “탄원서·진정서·청원서에 서명”한 경험에 대학생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여 준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odds)이 약 2.106배이며($p < .001$), 수도권에 비해 부산·대구·울산 지역이 참여할 승산은 약 1.489배($p < .05$), 수도권에 비해 전북·전남·광주 지역이 참여할 승산이 약 1.709배($p < .05$)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변인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해석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863배 증가($p < .01$)하고,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가 높을수록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2.948배 증가($p < .001$)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의 가치가 “탄원서·진정서·청원서에 서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2는 종속변인이 “보이콧(불매·구독거부 운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학생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참여할 승산이 약 1.765배($p < .001$)이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839배 증가($p < .001$)하고,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가 높을수록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2.311배 증가($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model2는 model1에서의 결과와 같이, 대학생의 가치는 보이콧(불매·구독거부 운동)의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3은 종속변인이 “평화적 시위나 촛불집회에 참여” 경험에 대학생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이 유형의 참여에 대학생의 가치, 즉 물질주의가 탈물질주의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승산이 약 1.181배 증가($p < .05$)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적일수록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761배

증가($p < .001$)하고, 정치적 흥미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2.487배 증가($p < .001$)한다. 하지만 model4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가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수도권에 비해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이 이러한 시민행동에 참여할 승산이 약 1.683배 증가($p < .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할 승산이 약 2.767배 증가($p < .001$)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model5는 종속변인이 “파업·점거농성에 참여”를 한 경험에 대학생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가치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파업·점거농성에 참여”할 승산이 약 1.224배($p < .05$) 높으며, 전공이 인문·사회·교육에 비해 예·체능 계열이 참여할 승산비가 약 1.884배($p < .05$) 높고, 수도권에 비해 부산·대구·울산이, 충북·충남·대전·세종이 “파업·점거농성에 참여”할 승산이 각각, 약 1.589배($p < .05$), 1.871배($p < .05$) 높았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가 높을수록 “파업·점거농성에 참여”할 승산은 각각 약 .763배($p < .001$), 1.850배($p < .001$)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대학생의 가치는 시민행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세부적인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촛불집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적 성향일수록, 정치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시민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치와 사회참여의 연관성

다음은 종속변인이 시민단체 참여(model1)와 정치단체 참여(model2)인 다중회귀모형이다. 즉 대학생의 가치가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odel1에서는 물질주의와 시민단체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대학생의 가치가 물질주의일수록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p < .05$), 정치에 대한 흥미의 정도가 높을수록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 .001$).

둘째, model2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가 정치단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정치에 대한 흥미의 정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또한 분석모형의 설명력도 종속변수의 변이의 약 1.1%만을 설명하여 모형도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정치단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또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의 대학생이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 정치단체 참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위 해석을 제시한 표는 말미의 <부록>에 첨가하였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가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잉글하트와 달톤 등 후기산업사회 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럼 우리나라에서도 탈물질주의의 증가를 젊은 세대가 이끌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대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탈물질주의자는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조사(KSDC 2010)보다 3배나 많았다. 미국의 금융사태(2008) 이후의 장기 불황과 청년 실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에서조차 탈물질주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는 일차적으로 경제 불황의 효과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후기산업화 효과나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쉬운 참여”로 분류되는 투표 참여에는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욱(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김욱은 전국 유권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물질주의가 투표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강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본 연구에서는 학년으로 대체)은 김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한편, 박희봉(2010)의 연구에서처럼 지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희봉의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지역 대학생이 타지역 대학생보다 투표율이 높았으며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투표율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셋째, “어려운 참여”의 한 형태인 시민행동은 대학생의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클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즉 김욱과 김영태(2006)의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요인이 어려운 참여인 사회참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에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조기숙과 박혜윤(2008)의 연구에서도 집회 참가자의 성격이 물질주의적이기보다는 탈물질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김욱(2013)의 연구에서도 탈물질주의 지수가 클수록 어려운 참여인 비선거참여에 관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물질주의자가 서명, 보이콧, 시위, 파업과 같은 비관례적(unconventional) 정치행동에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서구의 연구 결과(Inglehart, 1990)와 비교해 볼 때, 대학생 집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드러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김욱·김영태, 2006)와 일치하였다.

넷째, “어려운 참여”중에서 어떠한 유형의 시민행동에 탈물질주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탈물질주의는 “평화적 시위나 촛불집회에 참여”와 “파업과 점거농성에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평화적 시위나 촛불집회 참여”의 경우에는 학교 소재지를 투입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탈물질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이 시민행동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인이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인 모형을 제외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대학생이 시민행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는 모든 정치사회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기숙과 박혜윤(2008)의 연구에서 주장했듯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고학력자이며, 물질주의적이기보다는 탈물질주의적이라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가치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투표나 시민행동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대학생의 가치가 물질주의일수록 시

민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보다 주목할 것은 정당과 노동운동 등 정치단체의 참여는 그 어떤 변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청년 세대에 대한 정당의 낮은 관심 요인이다. 최근에 와서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청년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한 때 진보정당의 바람이 불면서 민주노동당의 대학생 당원은 전체 당원의 10%를 차지하였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였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전국 50여개 지부에 3천여 명의 당원들이 활동하였다(『한겨레21』, 2004.2.12). 그러나 거듭된 노선 분열과 결정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학생위원회 조직들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다른 정당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정치자금법의 10%를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여성위원회와 달리 17만 명을 거느린 민주당 청년위원회의 예산은 0원이다. 정해진 예산을 사전에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특히 선거유세 때마다 필요 경비를 조달받는 방식이다(『노컷뉴스』, 2015.9.23.). 또 다른 요인은 정당과 정치활동에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는 폐쇄적인 대학문화에 있다. 아직 많은 대학들이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 금지’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한겨레21』, 2004.2.12).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물질주의든 탈물질주의든, 진보와 보수든 상관없이 대학생들의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의 참여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풀지 못한 숙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장 큰 아쉬움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구분과 특성에 집중한 까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혼합형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분석의 사각지대로 남은 혼합형의 정치

참여와 사회참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다음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계는 ‘정치에의 관심과 흥미’ 즉 정치적 개념으로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중요 변수를 다루지 못했다.³⁾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참여와 시민행동, 사회단체와 정치단체 참여 모두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특정 집단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투표와 시민행동, 정당정치와 광장정치는 현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양대 기둥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이상적인 정치는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마법의 탄환(bullet)인 투표(ballot)를 든 ‘양손잡이 민주주의’일 수 있다(최장집·박상훈 2017).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속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체제에 대한 확신, 즉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 비롯한 청년세대들이 정치사회적 참여에 적극 나서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비례대표 등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접수, 5월 1일 심사완료, 5월 19일 게재확정)

3)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내적 효능감)과 개인의 그런 요구에 대해 정치집단 및 정부가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외적 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선 안명규·류정호(2007, 121)를 참조.

참고문헌

- 강수택·박재홍. 2011.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Oughtopia』. 26권 3호. 69-95.
- 김두식. 2005.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 연구.” 『ECO』. 9호. 135-180.
- 김육.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 연구』제16권 2호. 27-59.
- 김육 · 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대전과 목포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9권 1호. 179-202.
- 김진하. 2006. “정치의식의 지역차이: 지역주의에 한 새로운 접근.” 『한국정당학회보』. 5권 1호. 199-234
- 마인섭·장훈·김재한.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2호. 29-52.
- 민병기 · 김도균 · 한상헌. 2013. “대전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
- 박재묵·이정림. 2010. “자원봉사자의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 - 태안지역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가치관 분석”. 『ECO』.14권 2호. 53-84.
- 박재홍 ·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제46집 4호. 69-95.
- 박희봉. 2010. “한국 대학생의 지역주의: 지역별 가치관, 정치이념,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57-174.
- 배한동. 2001.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85집. 집문당.
- 성경룡. 2015.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한국사회학』, 49권 2호. 193-231.
- 송경재. 2011.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2호. 57-88.
- 안명규 · 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커

- 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23호. 114-139.
- 어수영. 1999.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상환. 1999.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지역주의 : 주요지역 정치학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1세기정치학회보』. 9권 2호. 157-171.
- 이수진. 2012.12. <대학사회 봉사 현황 점검 및 진단: 2011년 대학정보공시 사회봉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권 1호. 275-298.
- 잉글하트. 1983. 『조용한 혁명』. 정성호 역. 종로서적.
- 잉글하트·웰젤. 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지은주 역. 김영사.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87-112.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집 5호. 289-322.
- 전용주·김도경·서영조. 2008. “부산·광주지역 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연구: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89-314.
- 정상호. 2015. “후기산업화시대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시대의 정당정치의 부조화.” 『기억과 전망』. 33호. 12-56.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호. 61-83
- 조기숙.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성향: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권 3호. 125-148.

- 최장집·박상훈 2017.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 최장집 교수와의 대화.”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서울: 후마니타스. 15-147.
- 퍼트넘, 로버트 D. · 데이비드 E. 캠벨 지음. 2013. 『아메리칸 그레이스: 종교는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통합하는가』. 정태식 · 안병진 · 정종현 · 이충훈 옮김. 페이퍼로드.
- 학원복음화협의회. 2006; 2009;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 Aldrich, J.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246-278.
- Dalton. Russell 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CQ Press. Washington D.C.
- Inglehart, Ronald F.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utnam, R. D. 2002.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vitch, Diane & Joseph P. Vitertitti, 2002. *Making Good Citizens: Education and Civil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New Heaven & London.
- Schartz, Shalom. H. 1990. "Individualism-collectivism: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139-157.
- Skocpol, Theda and Morris P, Fiorina.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Verba, S. et al, 2002. *Voice and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록〉 대학생의 가치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Model1		Model2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치(0: 물질주의, 6: 탈물질주의)	-0.021*	0.009	-0.002	0.008
성별(기준: 남성)	-	-	-	-
여성	-0.034	0.019	-0.006	0.018
전공(기준: 인문/사회/교육)	-	-	-	-
자연/공학	0.014	0.020	0.035	0.018
의학계열	-0.000	0.038	0.010	0.035
예체능	0.033	0.034	0.064*	0.031
	-	-	-	-
학년	0.002	0.009	0.003	0.008
가구소득(log)	0.001	0.006	-0.010	0.006
학교 소재지(기준: 서울/경기/인천)	-	-	-	-
강원	0.007	0.041	0.034	0.037
부산/대구/울산	-0.023	0.022	-0.026	0.021
전북/전남/광주	0.007	0.030	-0.001	0.027
충북/충남/대전/세종	-0.030	0.027	-0.025	0.025
제주	-0.099	0.098	-0.051	0.090
주관적 계층의식	0.020	0.012	0.013	0.011
정치적 성향	-0.003	0.006	0.006	0.005
정치에 대한 흥미 정도	0.035***	0.012	0.033**	0.011
상수	1.014***	0.069	0.920***	0.064
표본 수	700		700	
결정계수	.044		.032	
수정된 결정계수	.023		.011	

유의수준: +p<0.10, *p<0.05, **p<0.01, ***p<0.001이며,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Abstract

A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Value on the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 in Korea

Jeong, Sang Ho · Cho, Kwang Deok

This research is on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the value system and political · social particip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is research finds that Inglehart and Dalton's theory which post-materialism have been increased in post-industrialization society and young generations takes lead the trend proved to be true in Korea. Second, this paper found that those with more post-materialistic values are more likely to engage themselves in civic action(difficult participation) than those with more materialistic values. In other words, those with materialistic values more active in voting(easy participation) than those with post-materialistic values. At the group level, one can expect that the two groups show meaningful difference in te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especially in candle demonstration. Third, those with materialistic values are active in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NGOs than those with post-materialistic values. But it's effect are as big a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ifferenc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y and labour union between two groups are insignificant.

Key Word: materialism, post-materialism, participation. civic action, college students.

